박사학위논문

일한 번역교육 수업지도안 연구 - 학부과정 토론식 수업을 중심으로 -

김보애(Boae Kim)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1. 선행연구

학부과정 번역교육에 관한 연구(안임수 2002; 김순영 2005; 조성은 2007; 김종희 2008, 2009; 이은숙 외 2010; 전지현 외 2010; 황순희 2010; 이상빈 2010, 2013; 이미경 2011, 2012; 이혜승 2012; 강수정 2013; 이향 2014; 남철진 2016)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석사과정과는 차별화된 번역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어의 경우, 김종희(2008)에 따르면 학부과정에서 통번역 전공 커리큘럼이 활발하게 개발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학부과정 한일 통번역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무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통번역대학원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학부과정에서 번역교육을 실시한 초기에는 선행연구 및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 충분하지 않아, 통번역대학원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도입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종희(2009)는 후속연구를 통해, 학부과정 통번역 수업에 적합한 교재와 교수법 등에 관한 연구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진단하며, 통번역대학원의 수업 운영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텍스트의 난이도만을 조절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영어를 중심으로 학부과정 번역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의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향후에도 학부과정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운영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언어 또는 담당 교수자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학부과정 번역수업은 번역실습, 학습자의 발표, 교수자의 피드백, 용어 습득, 단어시험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교수자들은 연구의 결과나 실무 번역 경험에서 터득한 지식을 스스로 체계화하여 수업자료로 활용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일한 번역교육 수업지도안에 관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부과정 토론식 번역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수업지도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구성에 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Ⅰ.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개요를 기술하고, ‘Ⅱ. 이론적 배경’에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을 고찰한 후 연구모델을 제시하였다. ‘Ⅲ. 수업노트에 관한 예비연구’에서는 객관화 분석 도구에 근거하지 않은 ‘수업노트’를 실제 학부과정 번역교육에 적용하였고, 연구모델 및 예비연구 결과에 따라 ‘Ⅳ. 수업지도안에 관한 연구방법’에서는 연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Ⅴ. 번역대회의 후속대회 데이터 분석’에서는 객관화 분석 도구에 근거해 번역 텍스트를 분석하고 ‘수업노트’를 완성한 후 ‘발문’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Ⅵ. 수업지도안 작성’에서는 학부과정 번역수업에 ‘수업노트’를 적용하여 ‘수업지도안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수업지도안은 ① 교과목 목표 (학과에서 설정한 교과목의 학습목표), ② 수업의 목표 (수업시간 별 학습목표), ③ 학습자료 (원천 텍스트), ④ 분석도구 (데이터 활용 방법), ⑤ 수업 진행 방식 (시간 및 활동), ⑥ 수업노트 (데이터 기반 번역의 문제), ⑦ 집단토론 발문 (데이터 기반 발문 항목 및 발문 방식), ⑧ 피드백 (데이터 기반 피드백), ⑨ 평가 (강의계획서 근거), ⑩ 번역실습 과제 (강의계획서 근거), 10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연구에서는 사단법인 한일협회의 ‘전국 대학생 일본어 번역대회’에서 제공 받은 ‘후속대회’의 번역 데이터와 학부과정 번역수업 번역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텍스트 분석방법으로는 국립국어원 관련누리집에 링크된 국가지정연구실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연구실에서 운영하는 ‘우리말 배움터’라는 웹사이트의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와, ‘한글 맞춤법’,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그리고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는 방식 등을 ‘객관화 분석 도구’로 채택하였다.

3. 분석결과

‘후속대회’의 번역 데이터를 ‘용어’, ‘의미’, ‘간섭’, ‘문법’, ‘문장부호’, ‘명시화’ 등의 항목으로 분석하여 각각에서 ‘번역의 문제’가 관찰되는 비율을 산출하였다. 데이터로 삼은 8건의 원천 텍스트에 대해 각각 약 50명의 학습자들, 약 400건의 번역 텍스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번역의 문제가 관찰되었는지 항목 별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추출한 번역의 문제는 6개 항목, 13개 분류로, 약 200건 가량이다. 그리고 이 결과를 항목 및 분류, 분석기준, 원천 텍스트 표현과 번역 텍스트 표현, 번역의 문제가 관찰된 표현, 그리고 번역의 문제가 관찰된 비율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수업노트’로 정리하고, 이를 참고로 ‘발문’을 계획하였다. 연구에서는 ‘수업노트’와 ‘발

문’을 토대로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지도안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성을 인식해, 동일한 텍스트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두 개 이상 그룹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향후 유사한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다시 말해, 후속대회의 텍스트를 기초로 분석, 작성한 수업지도안을 특정 학부과정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업지도안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후속대회에서 출제된 원천 텍스트를 사용해 학부과정 번역수업에서도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동일한 원천 텍스트에 대해 이미 확보한 후속대회의 번역 텍스트 외에 학부과정의 번역 텍스트 자료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동일한 객관화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두 그룹의 데이터를 분석,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두 가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

4. 결론

첫 번째 분석결과는, 최초 두 그룹에서 번역의 문제는 동일한 비율로 관찰되었지만, 학부과정의 경우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최초 1주차 텍스트에서는 후속대회와 학부과정 번역수업에서 모두 39%의 번역의 문제가 관찰되었는데, 2주차에는 학부과정 번역수업이 후속대회에 비하여 4%p, 3주차에는 4%p, 4주차에는 6%p, 5주차에는 8%p, 6주차에는 8%p, 7주차에는 8%p, 8주차에는 6%p 낮은 비율로 번역의 문제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업지도안이 교육 효과적인 측면에서 학습자들에게 번역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후속대회는 일회적이고 학부과정 번역수업은 8주의 기간에 걸쳐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즉, 후속대회는 같은 날 4건의 번역을 한꺼번에 제출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점에 생성된 번역 데이터인 반면, 학부과정에서는 번역대회에서 출제한 2년치 원천 텍스트에 대한 번역을 매주 1건씩 총 8주에 걸쳐 실습하고 과제로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보다 장기간에 걸쳐 생성된 번역 데이터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업지도안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지도안을 적용한 수업에서 학습자의 발화나 행동을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강의평가의 서술형 항목과 두 그룹의 번역 텍스트에서 번역의 문제가 관찰된 비율을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교육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일부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분석결과는 두 그룹에서 발견되는 번역의 문제는 그 유형에서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다는 점이다. 즉 번역의 문제가 관찰된 비율은 격차가 커지고 있지만, 번역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에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어, 유사한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업지도안이 학습자 그룹의 성향과 무관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지도안에 발문을 도입한 본 연구는 학부과정 번역교육에서 교수자는 어떠한 질문을 해야 하는가, 즉 '잘 가르친다는 것은 옳은 답을 주는 것보다 옳은 질문을 던지는 것(J. Albers)[1]'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토론식 번역수업에서 교수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즉 교수자의 개입 정도, 개입 방법에 따른 수업방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문의 중요성에 주목한 것이다.

한편, 다음의 두 가지를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과정 일한번역 토론식 수업의 수업지도안을 제안하면서, 번역교육에서 중요한 요소인 원천 텍스트 선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연구에서 데이터로 삼은 사단법인 한일협회 번역대회에서 출제된 원천 텍스트와 총 400건에 달하는 번역 텍스트는 특정 학교에 소속된 학습자들의 번역이 아닌 전국 단위 규모로 개최되는 번역대회의 후속대회에서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들이 번역한 텍스트를 연구 데이터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후속대회 번역 텍스트를 분석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학부과정 번역수업에서 번역실습 과제로 제출한 약 150건의 번역 텍스트를 추가 분석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번역의 문제가 고찰되는 경향이 유사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분석 및 수업지도안 작성 방법이 특정 집단뿐 아니라 학부과정 번역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선정에 관한 연구 없이 번역대회의 원천 텍스트를 학부과정 번역수업에 적용하였다. 원천 텍스트 선정의 문제는 번역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니만큼, 원천 텍스트의 활용 가능 기간도 고려해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원천 텍스트 선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수업지도안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관련 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텍스트를 선정한 후, 해당 텍스트를 객관화 분석 도구로 분석하여 수업노트를 작성하고 발문을 도입해 수업지도안을 작성한다면, 수업지도안의 활용 가능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한계점은 토론식 번역수업에 수업지도안을 도입했을 때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는 한 학기 동안 수업지도안을 도입한 수업에서 학기 말에 학습자들에게서 어떠한 변화가 확인되는지, 또는 수업지도안을 토대로 발문을 했을 때 토론식 번역수업에서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수업지도안을 적용한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거나 수업

1) Gonzalez Davies, Maria. 신지선 역, 2014: 73

지도안을 도입했을 때의 효과 측정 등 수업지도안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것과 같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이. (2011). 「번역수업에서 번역과제물 감수활동을 통한 다면평가 제안」 『번역학연구』 12(3): 7-32.

강수정. (2013). 「학부 중국어 번역수업에서 일반통번역이론의 적용: 수업목표와 교육과정 연계 사례제시를 중심으로」 『중국어교육과연구』 17: 1-20.

강인애. (2002). 『PBL의 이론과 실제』 서울: 문음사.

_____. (2003). 『우리시대의 구성주의』 서울: 문음사.

곽병선 외. (2000).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곽해선. (2010).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서울: 동아일보사.

김남경. (2013). 「발문을 활용한 일대일(1:1) 첨삭 지도 방안」 『어문학』 120: 1-30.

김대영. (2014). 「학부 차원에서의 전문 번역 교육 가능성」 『통번역학연구』 18(1) : 41-57.

김련희. (2007). 「번역교육현장에서의 번역물 평가에 대한 제언」 『人文科學硏究』 13: 79-98.

김상수. (2013). 「한국어 교사 발화에 나타난 발문 전략 연구」 『한국어학』 60: 167-188.

김순영. (2005). 「학부 번역교육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소고: 이론 기반 텍스트 분석 교과의 도입」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1) : 27-43.

김종희. (2008). 「학부과정 한일통번역수업에 대한 학습자 요구분석」 『일어일문학』 38: 23-38.

_____. (2009). 「학부과정 한일통번역수업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재학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43: 109-124.

_____. (2009). 『학부과정 한일통번역 수업설계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김주헌. (2010). 「경영학 교육에서의 PBL(Problem-Based Learning) 방식 도입 사례」 『Korea Business Review』 14(1): 1-16.

김진숙. (2012). 「번역 강의실에서의 의사소통」 『번역학연구』 13(2) : 41-63.

김한식. (2002). 「한일 통역 및 번역 강의에 대한 연구조사: 통역번역대학원 재학생 및 교강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6: 21-51.

_____. (2004). 「일본어 번역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일본학보』 58: 69-84.

_____. (2006). 『한일 통역과 번역』 서울: 한국문화사.

_____. (2008). 「통번역 강의 진행에 관한 의식조사: 통번역의 텍스트 및 피드백에 관한 설문을 중심으로」 『동일어문연구』 23: 13-29.

_____. (2012a). 「한국에서 일본어 통번역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본학보』 91: 79-87.

_____. (2012b). 「일한 번역에 나타난 번역투 문장」 『새국어생활』 81-98.

김혜영 (2004). 「번역 과정 중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분석: TAP 의 대체 방법으로서의 번역일지」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6(2): 23-38.

_____. (2012). 「한국어 교육에서 수준별 소설 텍스트 선정을 위한 연구: 텍스트 위계화를 위한 변인에 대한 고찰」 『독서연구』 27: 179-221.

남철진 (2016). 「학부 학생의 中國語 번역 문제와 번역교육 필요성에 대한 고찰」 『동아인문학』 35: 319-347.

박미정 (2011) 「기능주의 관점에서 본 펄벅 <대지> 번역」 『일본어문학』 48: 55-78.

_____. (2012). 「BA번역의 언어간섭과 수용(acceptability)에 관한 고찰」 『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 53-64.

_____. (2013a). 「BA번역의 언어간섭과 수용성에 대한 일고찰: 한일/일한 연설문번역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63: 31-47.
_____. (2013b). 「번역 학습자의 'voice' 선택과 개입: 법률텍스트 '전문용어' 일한번역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1) : 99-125.
박삼열. (2012). 『토론식 수업에서의 교수자 전략. 교양교육연구』 6(4): 237-262.
변영계. (2005). 『교수학습방법이론의 이해』 서울: 학지사.
성초림 외. (2001). 「번역 교육 현장에서의 번역물 품질 평가: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교강사 설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2) : 37-56.
신상형. (2012). 『토론식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1) – 토론식 수업에 앞선 오해들. 철학과 현실』 244-252.
_____. (2012) . 『토론식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2) – 토론의 필요성. 철학과 현실』 267-274.
신지선. (2010). 「번역교육시 번역평가모델 활용의 필요성 고찰」 『번역학연구』 11(3) : 121-142.
신희선. (2011). 「문제중심학습(PBL)을 적용한 의사소통교육 사례연구」 『한국교육논단』 10(3) : 137-169.
안미영. (2012). 「TED 영상번역의 번역교육 활용에 관한 소고」 『번역학연구』 13(4): 133-158.
안임수. (2002). 「학부제 하에서의 전공과 번역지도」 『번역학연구』 3(2): 47-62.
양은미. (2014). 『영어 수업지도안 작성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양창용. (2011). 「교실 상호활동 촉진을 위한 언어 표현 고찰」 『교육과학연구』 3(1): 135-152.
오경순. (2011). 「사역표현의 일한 번역과 번역투」 『일본문화연구』 38: 311-329.
오연주. (2010). 「공공쟁점 중심 사회과 토론수업에서 학생들은 왜 말하지 않는가? 」 『사회과교육』 49(2): 121-136.
이강룡. (2014). 『번역자를 위한 우리말 공부: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표현하는 법』, 서울: 도서출판 유유.
이근희. (2008). 「번역투 관점에서 본 번역 텍스트의 품질 향상 방안: 과학 분야 번역 텍스트 중심」 『번역학연구』 9(4): 271-289.
이미경. (2011). 「학부과정 번역수업에서의 피드백 방법에 따른 효과 및 학습자의 피드백 인식 비교」 『번역학연구』 12(3): 141-168.
_____. (2012). 「번역교육을 위한 텍스트 난이도 평가 기준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13(2): 139-169.
이상빈. (2010). 「텍스트 유형론에 기반을 둔 학부번역수업의 운영 사례연구: K. Reiss.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3): 167-211.
_____. (2013). 「학부 번역전공자의 교정교열(revision)에 관한 사례연구: 번역역량에 따른 비교의 관점에서」 『번역학연구』 14(5): 169-204.
이유진. (2010). 「번역교수법과 번역능력의 상관관계 연구」 『통번역학연구』 14(1): 123-144.
이은숙 외. (2010). 「학부번역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번역인식도 조사」 『언어학연구』 17: 215-234.
이주리애. (2016). 「학부 일어 통역 수업에 대한 소고 -텍스트 선정 및 수업 운영 사례 제안-」 『일본어교육』 73(0): 15-30.
_____. (2016).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번역의 번역수업 활용 제안」 『번역학연구』 17(2): 91-117.
이향. (2008). 『번역이란 무엇인가』 경기: 살림출판사.
____. (2014). 「제2외국어권 학부에서의 번역교육: 쟁점과 제언 〈한불번역연습〉 강의를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47: 65-82.

이혜승. (2012). 「학부 통번역 교육 현황 및 교육 방법 연구: 토론과 논쟁 중심의 강좌 운영 사례 보고」 『통번역학연구』 16(2): 179-198.
장덕현. (2015). 「PBL과 MBTI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에 관한 연구」 『사고와표현』 8(1): 107-148.
장미라. (2010). 「예비 한국어 교사의 학습지도안 구성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54: 57-91.
장혜선. (2014). 『전문번역 교육을 위한 품질평가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논문.
전지현 외. (2010). 「번역교육을 통한 학부 영어영문학 전공 학습자의 영어능력 향상방안」 『언어학』 58: 45-73.
정철자. (2012). 「번역 교육과정 개발 평가: 시장 수요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2): 265-282.
정하준. (2012). 「 'だろう'의 한국어 대응어 연구: 일한번역례와 한일번역례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53: 1-21.
조성은. (2007). 「학부 통번역학과의 교육과정 연구: 재학생 대상 실태분석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2): 163-193.
_____. (2009). 『사고발화법(TAP: Think - Aloud protocol)을 통해 나타난 일-한 번역과정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조연순. (2006). 『문제중심학습의 이론과 실제: 문제로 시작하는 수업』 서울: 학지사.
조정하. (1999). 「영문 독해시 효과적인 텍스트 중심내용 이해를 위한 학습방안」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24: 11-29.
최정순. (1997). 「"개발자(Developer)"로서의 교사: 교재 개발 및 교과 과정 개발에서의 교사의 역할」 『한국어 교육』 8(0): 131-159.
최희경. (2010). 「번역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소고: 강의계획서 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4(1): 167-197.
하상필. (2015). 「강의식 수업을 대체하는 토론식 수업의 한 모형」 『사고와 표현』 8(1): 41-71.
함수진. (2014). 「하향식 번역교수 학습 접근법에서의 번역사노트 효용성 연구」 『번역학연구』 15(2): 259-293.
홍경아. (2012). 「'엄마를 부탁해' 한중 번역의 문제영역 고찰과 번역교육에의 시사점」 『중국어교육과연구』 16: 349-370.
황순희. (2010). 「대학의 번역강의 내용개발 연구: 프랑스어 중급 학습자의 번역물 평가 분석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33: 389-432.
황지원. (2013). 「대학 토론 교육의 의미와 구체적 적용 – 토론 관련 교양 교과목의 실제 활용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7(3): 565-595.
Malamah-Thomas, Ann. (2004). 『옥스포드 언어교육 지침서: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교실 상호작용』, 안종훈, 정미화 역, 서울: 범문사 (Language Teaching: A Scheme for Teacher Education: Classroom Interaction).
Arthur, L. (2012). 『교육과정이론과 실천 패러다임』 김복영 역,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Exemplars of Curriculum Theory).
Baker, M. (2007).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Birgitta E. D. (2016). 『번역과정의 전문지식과 명시화』 유한내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Expertise and Explicitation in the Translation Process).

Brown, H. D. (2001). 『원리에 의한 교수: 언어 교육에의 상호작용적 접근법』 권오량 외 역, 서울: Pearson Education Korea.

_____. (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서울: Pearson Education Korea.

Cecilia, A. (2016). 『통번역 과정 연구 방법 및 전략』 임향옥 외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Methods and Strategies of Process Research).

Durieux, C. (2003). 『전문번역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박시현 역,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Fondement didactique de la traduction technique).

Gile, D. (2009).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Gonzalez D. M. (2014). 『학습자 중심의 번역 수업 모델: 활동, 과업, 프로젝트』 신지선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Multiple Voice in the Translation Classroom).

Katharina, R. (2010). 『일반 통번역 이론 기초: 스코포스 이론』 안인경 외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

Kiraly, D. C. (2000). *A Social Constructivist Approach to Translator Education: Empowerment from Theory to Practice*.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Kirsten M. (2016). 『학부에서의 번역교육』 홍정민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Translation in Undergraduate Degree Programmes).

Munday, J.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_____. (2007). 『번역학입문』 남원준 외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Nord, C. (2006). 『번역행위의 목적성: 기능주의 번역론의 관점』 정연일 외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and).

Nuttall, C. (2005). *Macmillan Books for Teachers: Teaching Reading Skills In a Foreign Language*. Oxford: Macmillan.

Pym, A. (1992). Translation error analysis and the interface with language teaching.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1: 279-88.

_____. (2004). *The Moving Text: Localization, Translation, and Distribu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_____. (2014). *Exploring translation theories*. London: Routledge.

_____. (2014). *The Status of the Translation Profession in the European Union*. London: Anthem Press.

Snell-Hornby, M. (2007).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_____(2010). 『번역학 발전사』 허지운 외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Tan, Z. (2008) Towards a Whole-Person Transnlator Education Approach in Translation Teaching on University Degree Programmes. *Meta* 53(3). 589-608.

Van Dijk, T. A., & Kintsch, W. (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New York: Academic Press.

Venuti, L. (2000).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Wajnryb, R. (2014). 『언어 수업 관찰: 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관찰 안내서』 임칠성 외 역,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Willis J. (2012). 『언어교수학 입문』, 신형욱 외 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Einfuhrungin die Sprachlehrforschung).
安藤進. (2001). 『技術翻訳のためのインターネット活用法』 丸善
. (2003). 『翻訳に役立つ Google 活用テクニック』 丸善
大野陽子. (2012a). 「日本語教師の発問の傾向: 読解授業の経験年数による違い」 『2012年日本語教育国際研究大会口頭発表予稿集』 329.
_____. (2012b). 「日本語教師はどんな発問をするのだろうか: 教師年数の違いによる発問の傾向」, 『平成24年度日本語教育学会第1回研究集会予稿集』 61－63.
_____. (2013). 「日本語教師はどんな発問をするのだろうか」 『三重大学国際交流センター紀要』 2013. 8.
門倉正美. (2005). 「読解＝大意把握でよいか: 日本留学試験読解問題の分析・評価と新形式問題の提起」 『日本留学試験とアカデミック・ジャパニーズ』 (2): 30-42.
金城尚美. 池田伸子. (1996). 「物語文理解における挿入質問の効果に関する実験的研究: ハイパーメディア教材開発のための基礎研究」 『世界の日本語教育』: 61-12.
佐藤礼子. (2005). 「日本語の説明文理解における質問作成の効果に関する一考察: モニタリングの働きに注目して」 『広島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第二部 (53): 227-235.
柴田耕太郎. (2016). 「翻訳教育の現場」 『独協大学交流文化学科紀要 Encounters』 第2号: 99－112.
神保尚武. (1989). 「クラッシェンの言語習得理論の諸問題」 『早稲田商学同攻会』 333: 189-207.
鈴木明夫・栗津俊二. (2013). 「英文読解テストにおける和訳の役割と記憶表象」 『経営論集=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82: 89-99.
染谷泰正·斎藤美和子他. (2005). 「わが国の大学・大学院における通訳教育の実際調査」 『通訳研究』 第5号: 285–310
染谷泰正. (1996). 「通訳訓練手法とその一般語学学習への応用について」 『通訳理論研究』 第11号: 27-44
_____. (2007). 「英語教育における母語の扱いについて—メタ言語能力を育てるための“CA ＋1”の英語教育の勧め」 『Interactive』 23 号: 7–10
_____. (2010). 「大学における翻訳教育の位置づけとその目標」 『 外国語教育研究』 (3):73－102.
田中武夫·田中知聡. (2009). 『英語教師のための発問テクニック: 英語授業を活性化するリーディング指導』 大修館書店.
築道和明. (1989). 「英語読解指導における発問」 『島根大学教育学部紀要』 第23巻(2): 47-53.
長沼美香子. (2005). 「大学における「翻訳教育」の事例— 翻訳理論を応用した試み」 『通訳研究』 第5号: 225–237
_____. (2008). 「アンケートにみる日本の大学翻訳教育の現状—翻訳教育実態調査の集計と分析—」 『通訳翻訳研究』 8: 285－297.
平子義雄. (1999). 『翻訳の原理』 大修館書店.
深沢清治. (2008). 「読解を促進する発問づくりの重要性: 高等学校英語リーディング教科書中の設問分析を通して」 『広島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第二部(57): 169-176.
横山紀子. (2001). 「語の意味の習得におけるインプットとアウトプットの果たす役割」 『日本語国際センター紀要』 11: 1-12.
吉田達弘. (2001). 「社会文化的アプローチによる英語教育研究の再検討: 「獲得」 から「アプロプリエーション」 へ」 『言語表現研究』 17: 41-51.

본 초록은 '김보애. (2017). 일한 번역교육 수업지도안 연구-학부과정 토론식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Author's email address
boae_kim@naver.com

About the authors
Boae Kim is a Korean-Japanese conference interpreter and translator. She teaches as lecturer in the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r main research area is translator and interpreter training.